

2018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4

제4강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인문저술가, 고려대 교수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쪽 눈의 괴짜화가 최북』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일시 3월 22일(목) 저녁 7시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 다목적홀

주최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정창권¹⁾ 고려대 교수

- 차례 -

1.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이다
2. 조선시대 장애인 복지정책
3.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4. 더불어 함께 살자

1.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이다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이다. 언제 어떻게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을 지 모르며, 나이 들어 중풍이나 뇌졸중, 기타 노화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인구의 1/10 이상이 장애인이란 통계가 나와 있고, 누구든지 일가친척 중의 한 두명씩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 장애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장애에 대해 나오는 상관없는 그저 남의 일로만 여기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은 세상에서 쓸모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한평생 집안이나 복지시설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야말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보내기조차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우리 시대의 장애인상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뿌리 깊게 전해져온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학계나 언론, 심지어 사회복지사마저도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삼국이나 고려, 조선 등 전통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거나, 비장애인을 완전한 존재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처럼 '완전함'에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장애보다는 '능력'을 중시하여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

1) 문화창의학부 초빙교수. 주요 저서로 『홀로 버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포도대장 장봉익 검계를 소탕하다』, 『한쪽 눈의 괴짜화가 최북』,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물도사 수선, 한양의 물장수가 되다』 등이 있다. myjin55@hanmail.net

였다. 오늘날처럼 장애를 한계나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가 지닌 능력에만 최대한 집중했던 것이다. 이것이 전통시대 장애인사였으며, 현재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장애인 복지정책을 간략히 설명한 뒤,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업적을 이룬 역사적 인물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그리 심하지 않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 명칭과 유형

우선 조선시대 장애인은 어떻게 불렸을까? 오늘날 우리는 흔히 '장애인'이라 칭하지만, 그것은 1980년대 초반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쓰이기 시작한 것이고, 근대 이후만 해도 '불구자(不具者)'란 용어가 주로 쓰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에선 '독질(篤疾)', '폐질(廢疾)', '잔질(殘疾)'이라 칭하였고, 민간에서는 주로 '병신'이라 칭하곤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애를 질병으로 인식했고, 장애인을 고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인식했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장애인이 존재했다. 예컨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팔이나 다리, 손가락, 발가락, 척추 등이 불편한 사람), 척추장애인, 왜소증 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간질장애인, 기형아(삼쌍둥이), 백색증(온몸이 하얀 사람), 구순구개열(윗입술이 벌어진 사람), 양성인(남녀 두 성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사람), 성기능 장애인(생식기가 불완전한 사람) 등이 있었다.

선진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조선시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은 상당히 선진적이었다. 우선 그들은 장애인에게도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하도록 권하였다. 예컨대 조선후기의 실학자 최한기는『인정(人政)』에서 어떤 장애인이라도 배우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학파의 선구자 홍대용도『담헌서』에서 '소경은 점치는 데로, 궁형당한 자는 문지키는 데로 돌리며, 심지어 병어리와 귀머거리, 앓은뱅이까지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무조건 사회적 약자로 여기면서 집안이나 복지시설에 유폐시킨 채 장애 수당만 지급하면 끝이라는 오늘날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던 것이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휼했다. 예컨대 다산 정약용은『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듣지 못하는 사람과 생식기가 불완전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

으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점을 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그물을 떠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오직 중환자와 불구자는 구휼해주어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장애인에겐 조세와 부역 및 잡역을 면제하고, 죄를 범하면 형벌을 가하지 않고 면포로써 대신 받았으며, 연좌제에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시정(侍丁), 즉 부양자(활동보조인)를 제공하고, 때때로 노인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주며 쌀과 고기 같은 생필품을 하사했다. 기타 동서활인원이나 제생원 같은 구휼기관을 설치하여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구제하였다.

한편, 아직까지 세계 장애인사가 써지지 않아서 단언하긴 어렵지만,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는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듯하다. 조선전기 시각장애인 독경사 단체인 '명통사(明通寺)'가 바로 그것으로, 그들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이곳에 모여 경문을 외며 축수했다. 이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은 기우제, 일식과 월식, 질병치료 같은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여 독경(讀經)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쌀이나 벼 등의 물건을 보상으로 받았다. 다시 말해 명통사는 당시 국가의 지원을 받은 엄연한 공적기관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장애인 복지제도가 발달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민본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주지하듯이 전통시대는 임금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재해와 같은 갖가지 방법으로 하늘의 경고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은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과 함께 민심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졌는데, 그래서 역대 임금들은 늘 장애인 복지에 신경 써야 했던 것이다.

직업과 자립모델

조선시대 장애인은 집안에서 청소하기, 밥하기, 심부름하기 등 다양한 가사노동에서부터, 집밖에서 안경을 제조하는 안경장이, 칼이나 낫, 도끼를 만드는 대장장이, 그물을 짜는 그물장이, 망건을 만드는 망건장이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자립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엔 별도로 장애인만의 직업을 두고 있었는데, 점복가, 독경사, 악공 등이 그것이다. 점복가는 점을 쳐주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실명(失明)하여 시각장애인이 되게 되면 주로 이러한 점복가를 하였다. 독경사는 도교나 불교 경전을 읽어 병을 치료하거나 기우제를 지내는 것으로, 이러한 일도 시각장애인이 주로 하였다. 과학이나 의학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점복이나 독경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들 중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관직에 오르기도 하였다. 악공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장악원에 소속되어 내연(內宴)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길거리에서 연주하며 구걸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 정부는 별도로 장애인만의 관직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녹봉과 지위를 올려주며 자립을 독려했다. 먼저 시각장애인 점복가를 위해 관상감 소속의 '명과학'이란 관직을 두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왕의 곁에 머물며 정치의 길흉을 판단하거나 왕실의 간택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 시각장애인 악공을 위해 장악원 소속의 '관현맹인' 제도를 두었는데, 위에서처럼 그들은 왕비나 후궁, 공주 등이 주관하는 내연(內宴)에서 악기를 연주

하였다.

그밖에도 조선시대 장애인은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종9품 미관말직에서 정1품 정승, 심지어 왕 노릇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3.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장애인 왕과 종친들

장애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입을 수 있다. 조선시대엔 왕가나 종친 등 왕족 가운데에서도 상당수의 장애인이 존재했다.

먼저 역대 왕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은 평생 동안 소갈증(消渴症)²⁾과 풍습병(風濕病)³⁾ 등 많은 질병에 시달렸는데, 특히 안질(眼疾) 곧 시각장애로 고생을 많이 했다. 참고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시각장애를 안질, 즉 눈에 병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세종이 본격적으로 시각장애를 입게 된 것은 35세 무렵부터인데, 45세부터는 더욱 심해져서 자주 온천에 가서 치료하였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서는 걷기가 어려웠다. 온천에서 목욕한 뒤에도 별로 효험을 보지 못하였더니, 어젯밤에 이르러서는 『본초(本草)』의 작은 주석을 펴놓고 보았는데 또한 볼 만하였다."⁴⁾

이처럼 세종은 자신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당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예컨대 세종은 재위 18년(1435)에 시각장애인 점복가 지화와 이신에게 특별히 벼슬을 제수하였다. 또 시각장애인 점복가를 위한 관직으로 명과학을, 시각장애인 독경사를 위한 단체로 명통시를, 시각장애인 음악가를 위한 관직으로 관현맹인을 설치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다.

조선의 제14대 왕인 선조는 계속 심질(心疾) 혹은 광질(狂疾),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신장애 중 정신분열증에 시달렸다. 선조의 심질을 재위 21년(1588)인 37세부터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의 심질은 더욱 악화된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맹인 재상이 있었지만 어찌 맹인 임금이 있었겠는가. 거기다가 나는 심질(心疾)이 날로 고질이 되어 불을 대하고도 춤다는 소리가 나오고 눈을 씹어도 오히려 열이 생긴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달리며 혼미하여 동서를 구분하지 못해 좌우에서 모시는 자들이 모두 아연실색하는데, 유독 경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병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몇 가지가

2) 말라 물이 자주 먹히는 병. 주로 당뇨, 파로, 병후 쇠약 등으로 일어남.

3) 습기로 인해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병.

4) 『세종실록』 23년 4월 4일조.

겸해 있고 허다한 죄악을 지은 자이겠는가. 내가 하루를 더 왕위에 있으면 백성들이 하루를 더 걱정하게 된다."⁵⁾

선조의 심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져서 급기야 전광증(顛狂症), 곧 광인(狂人)이 되어간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비망기를 통해 선위(禪位)하겠다는 의지를 신하들에게 밝혔다.

조선의 제19대 왕인 숙종은 56세부터 시각장애를 겪게 되었다. 왼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까웠고, 오른쪽 눈은 보이기는 하나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지금 왼쪽 안질이 더욱 심하여 전혀 물체를 볼 수가 없고, 오른쪽 눈은 물체를 보아도 희미하여 분명하지 않다. 소장의 잔글씨는 마치 백지를 보는 것과 같고, 비망기의 큰 글자에 이르러서도 가까이에서 보면 겨우 판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지금 만약 안력(眼力)을 조리한다면 그래도 장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달리 할 만한 일이 없다."⁶⁾

그래서 신하들이 과거 세종대왕의 예에 따라 숙종에게도 온천욕을 권유했지만, 끝내 효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지러움 증세만 더할 뿐이었다. 이후 숙종의 시각장애는 더욱 심해져서 왼쪽 눈뿐 아니라 오른쪽 눈마저도 전혀 물체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숙종 44년(1718) 세종대의 전례에 따라 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케 한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은 황현의『매천야록』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얼굴에 표정이라곤 거의 없었고 주변의 일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사물의 형태나 이름에 대해선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이로 보면 그는 지적장애보다 자폐증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또한 구한말 의료선교사이자 세브란스 병원의 창시자인 올리버 R. 에비슨에 의하면 순종은 성기능 장애를 갖고 있어서 두 번씩이나 결혼했지만 후사가 없었다고 한다.

이밖에 왕실의 종친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인물들이 많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로 중종대의 환성군은 평소 간질장애를 갖고 있었고, 선조의 11번째 아들인 경평군 이륜은 정신분열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며 여러 차례 파직 위기를 당하였다. 선조의 막내딸인 정화옹주도 어릴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서 쉽사리 혼인을 하지 못하였다.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군의 외손자인 안흥군 이숙 역시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대화를 문자로 했다고 한다.

장애인 관료층

조선시대엔 장애의 유무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더욱 중시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오늘날 장관에 해당하는 대사헌이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정승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먼저 좌의정과 우의정 등 정1품 정승에 오른 장애인 관료부

5) 『선조실록』 25년 11월 8일조.

6) 『숙종실록』 43년 7월 19일조.

터 차례대로 살펴보자.

세종조의 정치사에서 황희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조선 건국 후 예악을 정비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운 허조였다. 이후 허조는 좌의정에 오를 만큼 세종의 큰 신임을 받았는데, 그는 바로 어려서부터 체격이 왜소하고 어깨와 등이 구부러진 척추장애인이었다. 하지만 비록 등은 굽었지만 마음은 대쪽같이 곧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음으로 권균은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 4등에 녹공되고 영창군에 봉해진 인물이다. 이후에도 그는 좌찬성, 이조판서, 우의정에 임명되고 영창부원군에 봉해졌다. 이러한 권균에게도 한가지 고질병이 있었으니 바로 간질이었다. 간질은 뇌의 한 부분 또는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경련 현상으로, 그 증세가 일어나면 온몸을 떨면서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을 뿐 아니라 입에 거품을 머금기도 했다. 권균은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하다 중종에게 사직을 요청한다. 하지만 중종은 "사직은 허락하지 않겠다. 휴가만 더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심희수는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충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어린 시절 기녀 일타 흥과의 사랑이야기로 유명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심희수는 도승지로서 선조를 의주로 호송하였고, 중국어에 능통하여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기도 하였다. 이후 심희수는 대제학에 올라 문형을 맡았으며,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었다. 하지만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한 60세 이후에는 다리에 병이 들어 절뚝거리는 지체장애를 입게 되었다.

영부사 심희수가 입시하였으나 앓은병이 병(病躄) 증세가 있었으므로, 왕이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그를 부축해서 오르내리도록 하였다.⁷⁾

그리하여 자주 상소하여 사직을 요청했으나, 광해군은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속히 조리하고 나와서 공무를 보도록 하였다.

윤지완은 숙종대의 문신으로, 기개와 도량이 뛰어날 뿐 아니라 청렴하고 검소한 성품이 남보다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다. 일찍이 중국의 점복가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었더니, 다른 말은 없고 그저 '무족가관(無足可觀: 발이 없으니 볼만하다)'이란 네 글자만 써 주었다. 당시엔 그 점복가가 틀렸다고 여겼으나, 훗날 풍증으로 다리를 자른 후 더욱 현달하여 우의정이 되고 청백리에 뽑히니, 그 말이 과연 맞았음을 알게 되었다. 1682년 윤지완은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후 풍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고 지체장애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일각정승(一脚政丞: 한쪽 다리의 정승)'이라 불렀다.

이외에도 개화기 풍자소설 <병인간친회록>에 의하면 선조와 광해군, 인조를 잇달아 모시며 우의정과 영의정까지 지냈던 오리 이원익은 키가 아주 작은 왜소증 장애인에 가까웠다고 한다. 또 영조, 정조 때의 명재상이었던 채제공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초상화와 『황성신문』1905년 4월 27일자 기사에 의하면 한쪽 눈이 사시이자 앞이 보이지 않는 시

7) 『광해군일기』 5년 5월 18일조.

각장애인이었다고 한다.

한편, 정승 이하의 장애인 관료들도 대단히 많았다. 먼저 공서린은 중종 때의 신진사림이었다. 일찍이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조광조와 권발, 김정국 등과 교류하며 학문을 넓혔다. 하지만 중종 14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와의 친분으로 사림파와 함께 투옥되고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이후 그는 심질(心疾), 즉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었다. 중종 32년 그는 다시 부제학에 제수되고 얼마 안 있어 대사헌이 되었지만, 심질 때문에 결국은 파직되고 말았다.

"대사헌 공서린은 근래 심질에 걸려 정신착란증이 있었는데, 어제도 모여서 함께 일을 의논할 때 멍하니 시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기한을 정하여 조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장관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도 없으니 체직하소서."⁸⁾

그의 친필이 『근묵(槿墨)』(성균관대 박물관 소장)이란 서첩에 실려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덕수는 영조 때의 문신으로, 문장이 출중하여 내직으로는 대사성, 대제학, 대사헌, 이조참판, 공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지냈고, 외직으로는 개성유수를 지냈다. 하지만 그는 귀가 어두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다. 그럼에도 영조는 평소 이덕수를 아주 총애했다.

임금이 소대를 청하였다. 우참찬 이덕수도 함께 입시할 것을 명했는데, 이덕수는 늙어서도 책을 좋아하여 다방면으로 박식했으므로 임금이 매우 귀하게 여겼다. 이날 『주자어류(朱子語類)』의 글을 진강했는데, 어려운 것을 묻는 것이 있으면 이덕수가 대답하는 것이 매우 상세하였다. (.....). 이덕수는 본디 귀머거리 병이 있어 여러 신하들이 강독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책만 어루만지며 좌우를 돌아볼 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은 할 얘기가 있으면 늘 사관에게 글을 써서 보이는 등 후의가 아주 두터웠다.⁹⁾

심지어 이덕수는 1735년 동지 정사(매년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는 사신)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물론 처음에 신하들의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동지 정사 이덕수는 문학과 지조에 있어서 당세에 제일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아마도 적임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수작할 일이 있을 경우 이는 진실로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였다. "한어(漢語: 중국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모두 귀머거리인데, 어찌 이를 병폐로 여길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이런 말이 나왔으므로 그가 반드시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니 아뢴 대로 하라." 하지만 이후 이덕수는 동지 정사로 청나라를 무사히 다녀왔다¹⁰⁾.

8) 『중종실록』 35년 5월 27일조.

9) 『영조실록』 16년 11월 21일조.

유수원(1694~1755)은 영조 때의 문신이자 실학자였다. 호는 농암(龕菴: 귀머거리)이었다. 25세에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나아간 뒤 정언, 낭천현감, 지평, 단양군수 등을 역임했다. 40세 전후에 질병으로 청각장애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40세인 단양군수 시절에 사회개혁서인 『우서(迂書)』를 저술했다. 우서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 사상의 선구적인 저서로, 이후 박지원과 박제가, 홍대용 등 북학파에 영향을 주었다. 또 신분질서를 타파하여 만민평등을 이루고, 상공업의 진흥을 통해 부국안민(富國安民)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 책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영조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비국(비변사) 당상 이종성이 아뢰기를,

“단양군수 유수원은 비록 귀가 먹었으나 문장을 잘합니다. 책 한권을 지었는데, 나라를 위한 경륜을 논한 것입니다. 헛되이 늙는 것이 아깝습니다.”

하였다. 또 이광좌가 아뢰기를,

“신 역시 그 책을 보았는데, 책 이름을 『우서』라 합니다. 주장과 논변이 매우 이채롭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구해 올리도록 했다.¹¹⁾

영조는 우서를 읽고 나서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술은 선유(先儒)의 말을 뽑아 모아 공교로움을 구하는데 지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만을 기술했으니 참으로 귀하다.”라고 칭찬했다. 이후 유수원은 내직으로 들어와 경연에 참여했는데, 영조는 그와 붓으로 토론하며 진기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와 함께 영조는 특명으로 이덕수와 함께 『속오례의』를 편찬토록 하기도 했다.

그런데 영조 31년(1757) 전라도 나주에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여 백성의 도탄이 심해 거병하노라’라는 과서가 붙었다. 이 나주과서사건으로 소론들이 연루되어 크게 화를 입었는데, 소론 강경파 유수원도 흉언(凶言)을 했다 하여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당쟁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유수원은 중도에 청각장애를 입었지만, 그에 개의치 않고 사회개혁서 『우서』를 썼을 뿐 아니라 계속 관직생활을 했다. 비록 당쟁에 희생되어 불우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학문과 경륜은 당시에 높이 평가되었다.

이밖에도 세종 때의 권절은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와 박사, 사헌부 감찰, 지승문원사 등을 지내고 집현전에 들어간 인물인데, 그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양손의 여덟 손가락이 모두 붙어 있는 지체장애인이었다.

또 세조 때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옥산은 신숙주와 함께 두만강에서 야인들을 토벌한 공로로 정5품 사직의 벼슬을 하사받았다.

성종 때의 시각장애인이었던 신자교는 사간원 사간과 성균관 사성을 지냈는데, 결국은 시각장애로 인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남원으로 내려가 여생을 마쳤다.

10) 『영조실록』 14년 10월 15일조.

11) 『영조실록』 13년 10월 24일조.

중종 때의 조옥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했으나 심질, 즉 정신장애로 인해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학문의 길로 나아갔다. 용문산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닦아 사람들에게 '용문선생'이라 일컬어졌다. 명종이 즉위하여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아보고 장수 현감에 제수했지만, 이번에도 심질을 이유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중종 때의 이정호도 심질을 갖고 있었음에도 성균관 전적과 경성판관, 함경도 평사 등을 지내기도 하였다.

광해군 때의 이람과 원옥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둘 다 과거에 급제하여 이람은 3품관, 원옥은 절충장군을 각각 지내었다.

효종 때의 임익상도 간질장애인이었지만 황해도 금천 현감과 평안도 안주 목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렇게 조선시대엔 거의 모든 왕대마다 장애인 관료들이 조정에서 벼슬하고 있었다¹²⁾. 오늘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장애인 장, 차관이나 국무총리 등을 생각하기조차 힘든 상황과는 너무도 달랐던 것이다.

장애인 예술가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조선시대에도 문인이나 서화가, 음악가 등 장애인 예술가가 대단히 많이 존재했다.

먼저 조선시대 장애인 예술가 중에는 학자이자 문필가인 문인(文人)이 가장 많이 존재했다. 당시 양반층에서도 장애인이 많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평생 동안 학문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전기의 시인 고순은 어렸을 때 귓병을 앓아 청각장애를 입은 뒤로 땅바닥에 글자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였다. 하지만 성품이 독실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시로써 교류하였다.

조선후기 시인이자 점복가인 유운태는 6살에 이미 고체시를 지을 줄 알았으나, 불행하게도 7살에 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13살에 경서를 다 외웠는데, 한번은『주역』을 공부하다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유명한 점복가가 되었다.

숙종 때의 졸수재 조성기는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이었지만 조선후기 최고의 학자이자 문필가였다. 그는 일찍이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과거에 응시하여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20살 때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뒤 척추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이후로 학문에만 전념하여 <허생전>의 허생이 최고로 꿈을 정도로 대학자가 되었고, 평생 동안 많은 글을 써서 시문집인『졸수재집』을 남겼으며, 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소설 <창선감의록>을 짓기도 하였다.

현종~영조 때의 시인 부부였던 김성침과 홍씨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글 짓는 솜씨가 가히 남들의 모범이 될 만했고, 시풍 또한 맑고 아름다웠다. 저서로 『잠와집』2권을 남겼다고 하는데, 현전 여부는 미상이다.

숙종~영조 때의 여향문인인 강취주는 젊었을 때 거리를 돌아다니며 협기를 부리다가,

12) 왜 우리나라 사극에선 장애인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을까?

끝내는 한쪽 다리의 지체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이후 그는 작대기를 짚고 꺾충꺾충 뛰어 다녔는데, 그것을 보고 당시 관료인 조상우가 '노주(鷲洲)'란 호를 붙여주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시를 배워 사대부들을 따라다니며 놀았고, 집에서는 가죽옷을 지어 살아갔다.

조선후기 무릉 지방에 살았던 지여교는 두 다리가 불편하고 한쪽 눈마저 보이지 않는 중복장애인이었다. 하지만 능름한 기상으로 계속 공부하여 결국엔 뛰어난 시인이 되었다. 당시 지여교가 붓을 잡고 시를 쓸 때면 광채가 솟구쳤다고 한다.

이단전은 영, 정조 때에 살았던 시인이었는데,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다 말까지 어눌했던 언어장애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신분이나 외모에 매어 살지 않았다. 천한 신분과 달리 시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글씨도 잘 써서 당대에 아주 유명했는데, 그로 인해 양반사대부라도 교류하며 살아간 독특한 인물이었다.

장훈은 정조 때의 지체장애인 시인이자 출판인, 아동교육자였다. 그는 6살 때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이 되었지만, 그에 개의치 않고 한 세상을 매우 열정적으로 살아갔다. 특히『아희원람』이나『계몽편』 등 아동용 교재를 많이 편찬하여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선구자가 되었다.

정조 때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강이천은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이었고, 다리에 고질적인 종기가 있어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18살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정약용 등 뛰어난 선비들과 함께 공부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33살에 해적 출현의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죄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는 당시 서울의 일상과 오락, 유흥 등 풍속사를 생생하게 묘사한『한경사(漢京詞)』 106수를 남겼다.

기정진은 세도청지기인 순조~고종 때에 산림처사로 살다간 조선말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문인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잦은 병치레와 천연두로 인해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하지만 장애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 학문에 정진하여 조선 성리학의 6대가로 꼽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장애인 서화가로는 한쪽 팔이 불편한 화가 이정과 한쪽 눈의 괴짜 화가 최북, 청각장애인 서예가 조광진 등을 들 수 있다.

이정은 조선중기 왕실의 종친이자 서화가로, 임진왜란 때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대나무 그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묵죽화의 대가였다.

영조 때 한쪽 눈의 시각장애인 화가였던 최북은 중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려 먹고 산 직업화가였다. 그는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자유분방하여 여기저기에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림은 산수와 화훼, 영모 등 다양한 분야를 그렸으나, 특히 산수화에 능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는 그는 남종문인화풍을 추구하며 자신의 개성을 한껏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

조광진은 정조와 순조, 헌종 때의 유명한 언어장애인 서화가였는데, 당대 최고의 명필이자 비평가였던 추사 김정희에게까지 찬사를 받을 정도로 명필이었다. 더 나아가 청나라 사람들까지도 그의 재능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엔 '관현맹인' 제도를 두어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대단히 많았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상당수 출현하였다.

이반과 정범, 김복산은 조선전기 관현맹인 출신의 유명한 시각장애인 음악가였다. 이반은 세종, 정범과 김복산은 성종 때의 인물인데, 이반은 현금을 잘 타서 궁중에 출입하였고, 정범과 김복산은 가야금을 잘 타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특히 김복산은 가야금 솜씨가 뛰어나서 성종에게 포상으로 벼슬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이마지도 성종 때의 관현맹인으로 가야금 솜씨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두 번씩이나 장악원 전악(우두머리)이 되었다.

기타 조선전, 중기 장애인 음악가로는 백옥과 김운란을 들 수 있다. 백옥은 조선전기 한쪽 눈의 시각장애인 기녀이자 어느 선비의 애첩이었는데, 노래와 춤, 관악기와 현악기 등 모든 음악에 두루 능통했다. 김운란은 조선중기 시각장애인 음악가로, 특히 아쟁의 대가였다. 그의 아쟁 솜씨는 당시에 아주 유명했는데, 대표적으로 허균의『성소부부고』에 의하면 김운란의 아쟁소리를 들은 사람마다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조선후기에도 관현맹인 출신의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계속 출현했는데, 숙종대의 하효달과 홍석해, 김석명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는 이들보다 거리를 떠돌며 음악을 들려주고 먹고 사는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예컨대 백성휘는 18세기 평안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시각장애인 음악가로, 비파를 잘 타고 잡가에도 능해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었다. 윤동형도 18세기 후반의 떠돌이 시각장애인 음악가로, 가야금과 노래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당시 그의 가야금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절묘하다고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끝으로 손봉사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각장애인 음악가였는데, 그는 비록 거리의 악사이지만 우리나라의 가곡 24성에 두루 통달하였다. 그래서 청중들이 담을 쌓고 던지는 돈이 마치 비가 오듯 쏟아졌다고 한다.

기타 유명한 장애인들

그밖에 조선시대 유명한 장애인으로 지화와 맹인이씨, 탄재 등을 들 수 있다.

지화는 태종과 세종 때에 유명한 시각장애인 점복가였다. 그는 왕실의 간택이나 국가의 점치는 일에 자주 동원되었는데, 특히 세종은 그를 총애하여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옹원 사직의 벼슬을 제수하기도 했다. 세종 말에 지화는 임금에게 거만하게 굴다가 귀양을 가기도 했다. 또 말년에는 단종 복위운동을 펼치다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리하여 이후 정조 때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장릉 배식단에 위패가 모셔지기도 했다.

맹인이씨는 선조 때의 유명한 시각장애인 여성사업가였다. 그녀는 청풍군수를 지낸 이고의 무남독녀로 태어나 서해와 결혼하여 약봉 서성을 낳았고, 사후에는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과부의 몸으로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냈을 뿐 아니라, 약식과 약과, 약주, 약포 등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팔아 집안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이다.

탄재는 정조 때의 유명한 청각, 언어 장애인 대장장이였다. 그는 칼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왕왕 일본도를 능가한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성격이 매우 포악하여 남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청각, 언어 장애를 갖고 있어 말로써 대화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한 아전이 손으로 말을 할 줄 알아 그의 얘기를 대신해주었다.

4. 더불어 함께 살자

이상과 같이 전통시대 장애인 복지정책은 공동체 지향적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했고, 자립할 수 있는 자는 그 속에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인지 전통시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상생(相生)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전통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엄연히 존재했다. 제도적으로는 공동체를 지향했지만, 백성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장애인을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고 당시 장애인이 오늘날과 같은 차별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었다. 현대의 장애인이 사회의 음지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전통시대 장애인은 비교적 양지에서 떳떳한 생활을 했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학식이 뛰어나면 그에 맞는 존경과 대우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양반층 장애인은 과거를 보아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일반적인 장애인도 사회에서 멀리 이탈하는 법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장애인은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아주 가까운 '이웃'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장애인은 개인적 결함이란 범주를 넘어 사회적 존재 가치의 상실까지 겪고 있다. 오늘날 장애인은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얼마나 배척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현대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걸러내기'와 다를 바 없다. 또 우리는 모두 장애인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장애인과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장애인은 일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전통시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편의주의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 '이웃'이란 인식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소 불편을 겪을지라도 얼마든지 장애인과 어울려 살 수 있다. 이젠 장애인에게 연민과 동정을 보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동행(同行)'해야 할 것이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이란?

기록문화유산은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기억창고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불조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교책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지난해에 등록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총 16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이며,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은 수많은 전란과 인식의 부재로 심한 훼손과 멸실을 겪으며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호남지방문화연구원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10년부터 호남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굴·집대성·콘텐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호남문집, 호남지방지, 호남서화, 호남누정현판·금석문, 호남고문서, 호남일기자료, 호남한글고문헌, 호남인물검색시스템 등 총 8개 부문입니다. 조사 연구의 결과물들은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www.memoryhonam.co.kr)와 ‘호남기록문화유산’ 어플리케이션(ios, Android)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주 소 : 501-023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www.rcef.or.kr 이 메 일 : r-cultural@hanmail.net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 강연자료(비매품)

펴낸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수인

펴낸일 : 2018년 3월 22일

※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

2018. 3. 13(화) ~ 3. 29(목)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 다목적홀

강의 일정

제1강좌 3월 13일(화) 저녁7시

전라도 천년, 지역민의 삶과 사상 그리고 자연

김 화 성 작가,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전라도 천년』,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길 21』
『길 위에서 놀다』, 『책에 취해 놀다』

제2강좌 3월 15일(목) 저녁7시

호남, 새로운 천년을 열자

문 안 식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호남인의 기원과 문화원형』,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서남해지역 해양문화』

제3강좌 3월 20일(화) 저녁7시

호남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

최 한 선 전남도립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연암정이며, 시심의 고향이며』, 『전라도도 전라도』,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 『여의도갈 배추』

제4강좌 3월 22일(목) 저녁7시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 창 권 고려대 교수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한쪽 눈의 괴짜
화가 최북』, 『정창권 교수의 문화콘텐츠학 강의』

제5강좌 3월 27일(화) 저녁7시

한국인의 뿌리, 족보 : 과거와 현재 미래

박 흥 갑 역사학자,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승정원 일기-기록문화의 보물』, 『우리 성씨와 족보
이야기』, 『사관 위에 하늘이 있소이다』, 『양반나라
조선나라』

제6강좌 3월 29일(목) 저녁7시

호남 서예가 열전

이 동 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
『퇴계 이황 서예미학 연구』, 『추사체의 형성과정과
성격 고찰』, 『한국에서의 서예전시 현황과 새로운
시도』, 『禪筆의 성격에 대한 시론』

■ 문 의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062-234-2727

■ 대 상 : 시민 100명 선착순 모집 (무료)

주 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재단